이대성, 현대모비스 유턴…좌절된 NBA 드림

G리그 이리에서 방출…고심 끝 복귀 결심 KBL 선수등록 승인하면 곧바로 경기 가능 이대성 "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 후회 없다"

미국프로농구(NB A) 하부리그 G리그에

도전했던 이대성(27)이 울산 현대모비스에 복귀 한다. 4일(한국시간) 소속팀 이리 베이호크스로 부터 방출통보를 받은 이대성은 G리그 무대 잔 류와 현대모비스 복귀를 놓고 고민을 해왔다.

이리에서 방출된 그는 일주일동안 뉴욕에 머

물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G리그 타 구단과 계약 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왔다. G리그 드래프트 이 전에 관심을 가졌던 2~3개 팀에서 영입의사를 나타냈지만, 관건은 출전시간이었다. 이리에서는 12경기에 출전했지만, 경기당 8분가량을 뛰면서 2.3점·1.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. 이대성 은 출전시간이 보장된 팀으로의 이적을 원했다.

이대성이 방출된 직후 현대모비스 유재학(54) 감독은 "원하는 구단이 있더라도 5분씩 뛰면서 엔트리 채우는 정도의 선수 역할을 한다면 돌아 와라. 지도자로서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아 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



이대성

다. 미국에서 선진 농구를 배 우는 것도 좋지만, 선수는 뛰 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 느냐"고 충고했다. 고심 끝 에 이대성은 복귀를 결심했 다. 11일 현대모비스 구단 관 계자와 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. 팀

동료이자 선배인 양동근(36)과도 복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. 11일 동아스포츠대상에 시상 자로 참석한 양동근은 "(이)대성이가 팀에 복귀 한다고 하더라.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. 돈 주고

못살 소중한 경험을 했다. 본인이 앞으로 선수생 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. 나도 이야 기를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다"고 말했다.

이대성은 현재 임의탈퇴선수 신분이다. 원소 속 구단 현대모비스의 선수등록 요청을 KBL이 승인하면 곧바로 경기에 투입 될 수 있다. 이대 성은 12일 입국한다. 이대성은 "감독님이 잘 생각 했다고 하시더라. 입지를 다지지 못해 아쉽지만 내가 부족했던 것이니까 실망하지는 않는다. 복 귀를 결심했으니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득점 1위 알레나 무릎 통증 1위 싸움 암초 만난 도로公



"안고 가는 수밖에 없네

KGC인삼공사 서남원 감독은 외국인선수 알레나 버그스마(27)를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. 최근 오른쪽 무릎 상태가 악화 한 탓에 자기 기량을 100% 보여주지 못하고 있

2016~2017시즌 득점왕(경기당 28.47득점)을 차지한 알레나는 '도드람 2017~2018 V리그'에 서도 11일 현재 득점 부문 1위(경기당 29.92득 점)를 달리고 있다.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선 경기 당 15.67점으로 평균득점이 뚝 떨어졌고, 공격성 공률도 33.59%에 그쳤다. 그러다 보니 무릎 상 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. 서 감독은 "그 간 허리와 어깨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, 무 릎이 아픈 게 처음이다 보니 예민하다.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쓴다. 일단 치료하면서 통증을 완화 하는 게 우선"이라고 밝혔다.

문제는 알레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 낙 크다는 것이다. 일단 공격점유율이 무려 45.1 %에 달한다. 블로킹 점유율도 18.4%다. 알레나 의 무릎에 인삼공사의 올 시즌 운명이 걸린 이유 가 여기에 있다. 속공을 제외한 모든 패턴의 공 격이 가능하고 사이드블로킹 능력까지 탁월한 알레나의 가치는 엄청나다. "어떻게든 팀에 도움 이 돼야 한다"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플 러스다. 서 감독은 "통증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 다"면서도 "병원에서도 보강운동을 하며 견뎌내 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. 다행히 수술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"고 설명했다. 알레나의 결장을 대비한 포메이션도 이미 구축했다. 센터 한수지가 라이트, 2년차 이선정이 센터로 나서 는 것이다.

무엇보다 서 감독은 알레나가 아픈 몸을 이끌 고 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. "경기 중에도 통 증이 있으면 사인을 달라고 했다." 통증이 악화 돼 승부처에서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다. 그는 "(알레나) 본인은 어떻게든 뛰겠다고 한 다"면서도 "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, 다른 선수 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 고민해보겠 다"고 밝혔다. 강산 기자 posterboy@donga.com

광주세계수영선수권 후원기업 세제혜택

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현물(재화 또 는 용역)을 후원하는 국내기업의 부가가치세 부 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이 최종 통 과됐다. 광주시와 광주수영대회조직위원회(위원 장 윤장현)는 '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 특례제한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,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(법 제104조의29 항 신설)'고 11일 밝혔다.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 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국내 기업의 현물 후원시 부가가치세를 약 83% 경감하는 과 세특례를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장은상 기자 award@donga.com

한글과 자연의 美 형상화 평창 패럴림픽 메달 공개



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 원회는 내년 3월 9일부터 18일 까지 펼쳐질 평창동계패럴림

픽의 메달을 11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, 트 위터,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(SNS) 계정을 통 해 공개했다. 모티브는 '한글'과 '평창의 아름다 운 자연'이다.

지름 92.5mm, 두께 4.4~9.42mm인 메달 앞면에는 패럴림픽 엠블럼 '아지토스'와 대회명 '2018 평창(PyeongChang 2018)'이 점자로 새 겨졌다. 또 평창의 구름과 산, 나무, 바람을 패턴 화해 촉감으로도 평창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했 다. 측면은 '평창동계패럴림픽 이공일팔'의 자음 인 'ㅍㅇㅊㅇㄷㅇㄱㅍㄹㄹㄹㅁㅍㄱㅇㄱㅇㅇㄹ ㅍㄹ'로 입체감 있게 표현됐다. 뒷면 왼쪽에는 아 지토스, 오른쪽에는 세부종목명이 표기됐다.

메달을 목에 걸 리본(스트랩)은 평창동계올림 픽과 같은 우리 전통 한복 특유의 갑사를 소재로 활용해 한글 눈꽃 패턴과 자수를 섬세하게 적용 했다. 리본의 폭은 3.6cm이고, 메달을 달았을 때 길이는 42.5cm다. 메달 케이스는 전통 기와지붕 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원목으로 제작 하는 등 한국적 요소를 가미했다.

메달을 디자인한 이석우 디자이너는 "한국의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패럴림픽 무브먼트 정신을



성화봉송 나선 '사위' 박철우-'장인' 신치용 장과 선수 사이인 동시에 장인과 사위 관계인 둘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. 대전 | 뉴시스

히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들도 메달을 만져보고 평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패턴을 넣었 다"고 밝혔다.

평창패럴림픽 메달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총 155 세트를 제작한다. 이 중 패럴림픽 80개 세부종목

뉴올리언즈 131 - 124 필라델피0

미네소타 97 - 92 댈러스

인디애나 ^{126 - 116} 덴버 〈연장〉

●경기결과

디자인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. 특 의 입상자들에게 133세트가 수여되고, 동점자 발 생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여분은 5세트다. 나 머지 17세트는 국내외 전시에 활용된다.

> 장애인크로스컨트리, 장애인바이애슬론・알파 인스키·스노보드·아이스하키,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. 80개 세부종목이 치러질 평창동계패럴림

픽에는 약 50개국, 150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총 2만500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한다. 이희범 조 직위원장은 "현재 패럴림픽 준비는 막바지 단계 에 접어들었다. 아름다운 평창에서 개최되는 역 대 최대 규모의 패럴림픽대회에 여러분을 초대 한다"고 말했다. 정재우 전문기자 jace@donga.com

로다JC 2 - 2 그로닝겐

덴버 23-0 뉴욕J

필라델피아 43 - 35 LAR

〈11일〉

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

보스턴 91 - 81 디트로이트

뉴욕 111 - 107 애틀랜타

토론토 102 - 87 새크라멘토

•에레디비지에 경기결과

NHL

•팀순위

편집 | 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경기 결과 여자프로농구 〈11일〉 •경기결과 KB스타즈 84 22 - 14 17 - 25 신한은행 68 (10승3패) 45 29

				_				_			_
1	NBA								〈 1	1일	>
•팀순위 동부 콘퍼런스											
순위	대서양지구	승	패	순위	중부지구	승	패	순위	남동지구	승	패
1	보스턴	23	5	1	클리블랜드	19	8	1	워싱턴	14	12
2	토론토	17	7	2	밀워키	15	10	2	마이애미	12	13
3	뉴욕	13	13	3	인디애나	16	11	3	올랜도	11	17
3	필라델피아	13	13	4	디트로이트	14	12	4	샬럿	9	16
5	브루클린	10	15	5	시카고	5	20	5	애틀랜타	6	20
					서부 콘퍼런	선스					
순위	북서지구	승	패	순위	태평양지구	승	패	순위	남서지구	승	패
1	미네소타	16	11	1	골든스테이트	21	6	1	휴스턴	20	4
2	덴버	14	12	2	LAL	10	15	2	샌안토니오	19	8
3	포틀랜드	13	12	3	LAC	9	15	3	뉴올리언즈	14	13
4	유타	13	14	4	피닉스	9	19	4	멤피스	8	18
5	오클라호마	12	13	5	새크라멘토	8	18	5	댈러스	7	20
•부	문별 순위				동부 콘퍼린	선스					
	득점 총	5 평	균		도움	총	평균		리바운드	총	평균
① ()테토쿤보(밀워키)	716	29.8	① ;	제임스(클리블랜드)	235	8.7	1	드럼먼드(디트로이트	398 (15.3
② J	레임스(클리블랜드)	764	28.3	2 ,	시몬스(필리델피아)	201	7.7	2	하워드(샬럿)	311	12.4
-	포르징기스(뉴욕)			_	로우리(토론토)	171		-	엠비드(필라델피아)		
	올라디포(인디애나)			_	딘위디(브루클린)			-	러브(클리블랜드)		
<u> </u>	빌(워싱턴)	619	23.8	_	슈뢰더(애틀랜타)		6.4	(5)	아데토쿤보(밀워키)	248	10.3
서부 콘퍼런스											
	·- `	5 평				총	<u> </u>		리바운드	총	
① 7	하든(휴스턴)	802	32.1	1	웨스트브룩(오클라호마)	247	9.9	1	조던(LAC)	343	14.3

② 커리(골든스테이트) 606 26.3 ② 하든(휴스턴) 233 9.3 ② 커즌스(뉴올리언즈) 336 12.4

③ 커즌스(뉴올리언즈) 708 26.2 ③ 그런(골든스테이트) 183 7.3 ③ 타운스(미네소타) 313 11.6

④ 릴라드(포틀랜드) 652 26.1 ③ 티그(미네소타) 169 7.3 ④ 카펠라(휴스턴) 288 11.5

177 7.1 ⑤ 데이비스(뉴올리언즈) 244 10.6

⑤ 듀란트(골든스테이트) 563 25.6 ⑤ 볼(LAL)

ä	해외축구									⟨11일	 }
• <u>=</u>	리미어리그						득점	덬			
	팀	경기수	승점	승	패	무		선수		팀	득점
1	맨체스터시티	16	46	15	0	1	1	살라		리버풀	13
2	맨체스터Utd.	16	35	11	3	2	2	케인		토트넘	12
3	첼시	16	32	10	4	2	3	모라타		첼시	9
4	리버풀	16	30	8	2	6	3	아게로		맨체스터시티	9
5	아스널	16	29	9	5	2	3	스털링		맨체스터시티	9
6	토트넘	16	28	8	4	4	6	라차제.	트	아스널	8
7	번리	16	28	8	4	4	6	루니		에버턴	8
8	레스터시티	16	23	6	5	5	6	루카쿠		맨체스터Utd.	8
9	왓포드	16	22	6	6	4	6	제수스		맨체스터시티	8
10	에버턴	16	19	5	7	4	10	바디		레스터시티	7
11		16	18	4	6	6	11)	마샬		맨체스터Utd.	6
	허더스필드	16	18	5	8	3	11)	새인		맨체스터시티	6
13	브라이튼	16	17	4	7	5	13	아자르		첼시	5
	본머스	16	16	4	8	4	13	니아세		에버턴	5
15	스토크시티	16	16	4	8	4	13	피르미	누	리버풀	5
	뉴캐슬	16	15	4	9	3	13	오스틴		사우스햄튼	5
	웨스트브롬위치	16	13	2	7	7	13	두쿠헤		왓포드	5
	웨스트햄	16	13	3	9	4	13	리찰리	슨	왓포드	5
	스완지시티	16	12	3	10	3	13	머레이		브라이튼	5
20	크리스탈팰리스	16	11	2	9	5_	20	지루		아스널	4
• 프	리미어리그	경기	결과								
	리버풀 1 사우스햄튼 1		에버턴 아스널			- E	<u></u> 밴체스	터시티	2 -	1 맨체스터Uto	d.
• <u>=</u>	리메라리가	경기	결과								
			ㅡ 베티스				5	말라가	2 -	0 레알소시에	나드
	바르셀로나 2	- 0	— 비야레알						- 2 -		
•분	데스리가 경										
	프라이부르크 4	- 3	쾰른				하노	-버96	2 -	0 호펜하임	
아	우크스부르크 1	- 1	헤르타베	를린							
•⊒	상피오나 경	기결	과								
	니스 2	- 1	낭트				마	르세유	3 -	0 생떼띠엔	
4	올림피크리옹 2	- 1	아미앵		Ì						

_											
순위	애틀란틱	승	패	ОТ	Р	순위	메트로폴	리탄	승 패	OT	Р
1	탬파베이	21	6	2	44	1	콜럼버스		19 10	1	39
2	토론토	20	10	1	41	2	워싱턴		18 11	1	37
3	보스턴	14	9	4	32	3	뉴저지		16 9	4	36
4	몬트리올	13	14	4	30	4	뉴왹		16 10	3	35
5	디트로이트	11	13	5	27	5	피츠버그		16 12	3	35
6	플로리다	11	14	4	26	6	뉴욕R		16 11	2	34
7	오타와	9	12	7	25	7	캐롤라이나		11 10	7	29
8	버펄로	7	17	6	20	8	필라델피아		11 11	7	29
				서부	! 콘	ᅫ	런스				
순위	센트럴	승	패	ОТ	Р	순위	퍼시댁	딕	승 패	ОТ	. Ь
1	St.루이스	21	8	2	44	1	LA		20 8	3	43
2	내슈빌	18	7	4	40	2	베가스		19 9	1	39
3	위니펙	17	8	5	39	3	새너제이		16 10	3	35
4	미네소타	15	11	3	33	4	캘거리		16 12	2	34
5	댈러스	16	13	1	33	5	밴쿠버		14 12	4	32
6	시카고	14	11	5	33	6	애너하임		12 11		31
7	콜로라도	13	13	2	28	7	에드먼턴		12 16	2	26
•경	기결과										
	토론토 1-0	에드	먼턴	ļ.			St.루이스	3 - 2 〈연장〉	버펄로		
	시카고 3-1	애리	조니	ŀ			미네소타	4 - 3 〈연장〉	새너제여	ı	
NFL 〈11일〉											
									``	"2	,
•경	기결과										
	버펄로 13 - 7 〈연장〉	인디	애니	폴리:	스		시카고	33 - 7	신시내티	1	
	캔자스시티 26 - 15	오를	랜드				댈러스	30 - 10	뉴욕G		
	캐롤라이나 31 - 24			ł			샌프란시스코				
	애리조나 12 - 7							30 - 13			
	잭슨빌 30 - 24	시이	를				피츠버그	39 - 38	볼티모여	Н	

그린베이 27 - 21 클리블랜드

디트로이트 24 - 21 탬파베이

동부 콘퍼런스

고) ●단체추발 남자 종합 체스프린트 여자 종합 순위	합 순위=① 뉴질랜드, ② 약 님=① 우크라이나, ② 중국	일본, ③ 미국, ④ 한국 •[·, (동) 김원경,이혜진(한국
경기 예고		
프로농구		⟨12일⟩
•2017-2018 정관	당 KBL	
SK	〈잠실학생〉	DB
오후7시, IB스포츠, MBC스	포츠플러스2	
KCC	〈전주실내〉	삼성
오후7시, MBC스포츠플러ź		
프로배구		⟨12일⟩
•도드람 2017-201	8 V-리그 남자부	
VD소웨터허	/이저ㅂ눼으까\	대하하고

농구 ●2017-2018 KBL D리그 1차(고양보조)

그 현재 순위=① 상무(5승), ② 전자랜드(3승2패), ③ DB(2승2패)

펜싱 ●2017 FIE 카타르 에페 국제그랑프리대회(카타르

사이를 ●2017-2018 UCI 제 4차 트랙 월드컵(칠레 산티아

달) •여자부 개인전 준결승전=마라(이탈리아) 15-10 최인정(한국,동메달)

교승3패) 83-81 DB(2승2패), 상무(5승) 107-87 SK(2승3패) ●리

남자부 개인전 결승전=박상영(한국,금메달) 3-2 정진선(한국,은메

아마추어 경기결과

KB손해보험	〈의정부체육관〉	대한항공							
오후7시, SBS스포츠									
●도드람 2017-2018 V-리그 여자부									
IBK기업은행	〈화성종합실내〉	도로공사							
오후5시, KBSN스포츠									

아마주어 경기예고 핸드볼 ●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(독일) ■ ●제 22회 아시아 U-19 청소년 럭비 선수권대회 <u>(필리핀 마닐</u>라)